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Consumer Insight

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Travel Report `19)

기 관	컨슈머인사이트	이 메 일	kimmh@consumerinsight.kr
문 의	김민화 연구위원/Ph.D	연 락 처	02) 6004-7643
배 포 일	'19년 07월 19(금) 배포	매 수	자료 총 3매

7말8초는 옛말…
여름휴가, 공휴일 맞춰 떠난다

- 컨슈머인사이트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

- 극성수기 국내여행 27.7%로 2년새 8.5%p 줄어

- 광복절 등 징검다리 연휴 활용해 여행수요 분산

- 전통적 여행시기 사라지고 공휴일의 중요성 점차 강해져

'7말 8초'로 대표되는 극성수기 여행 수요가 줄어들면서 휴가시기가 분산되고 있다. 이 기간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사람은 올해 27.7%로 2017년 36.2%에 비해 8.5%포인트(p)나 감소했다. 대신 30대 중심으로 추석연휴 등 공휴일을 끼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추세가 늘었다. 하지만 작년까지 이어지던 해외여행 성장세가 둔화하고 국내여행 침체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매주 500명, 연간 2만6000명 조사)에서 지난 3년간 여름휴가 시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다. 여름휴가 최고 성수기인 7말8초(7월 4주부터 8월 1주까지) 직전 4주간의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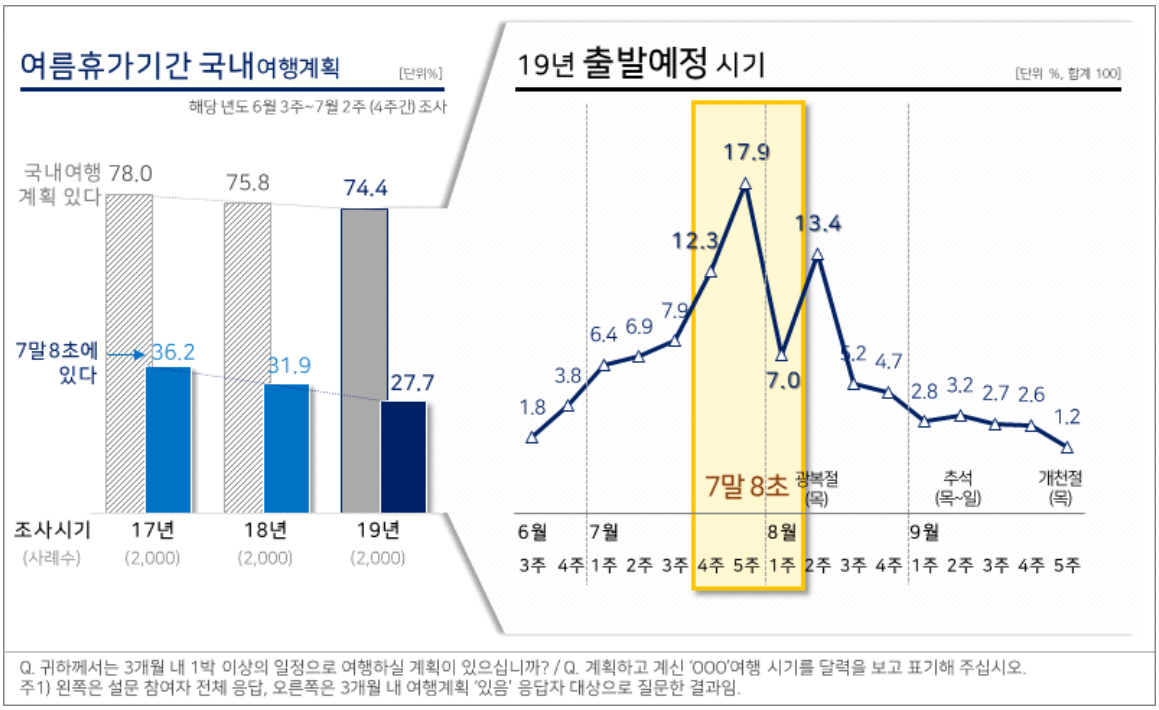
■ 국내여행 – 8월 1주 7%로 평균에도 못 미쳐

3개월 내 1박 이상의 '국내여행 계획이 있다'는 비율은 2017년 78.0%, 2018년 75.8%, 2019년 74.4%로 매년 1~2%p 이상 하락했다[그림1]. 그 중 여름휴가 극성수기인 7말8초 3주간의 계획은 지난 3년간 36.2%→31.9%→27.7%로 무려 4~5%p 가량 줄었다. 전반적인 국내여행 시장 침체에 더해 성수기 쏠림 현상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여행객 특성별로 30대와 40대는 전년대비 각각 7.7%p, 9.7%p 줄었고, 자녀 유아/초등기(-8.3%p)와 중/고등기(-9.3%p) 가구의 하락이 특히 심했다[별첨]. 반면 50대 이상은 전년대비 1.0%p 오르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상승했다.

3개월 내(6월 3주~9월 5주) 여행 계획자들의 출발 예정일 분포를 보면 7월 5주가 17.9%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자녀들의 방학이 집중되는 시기다. 7말8초를 벗어난 8월 2주로 13.4%였다. 목요일인 광복절을 활용해 징검다리 연휴를 계획하는 여행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7월 4주는 12.3%였고, 8월 1주는 7.0%로 평균 수준에 그쳐 7말8초라는 말이 무색했다.

<그림1. 여름휴가 기간 국내여행 계획 및 출발예정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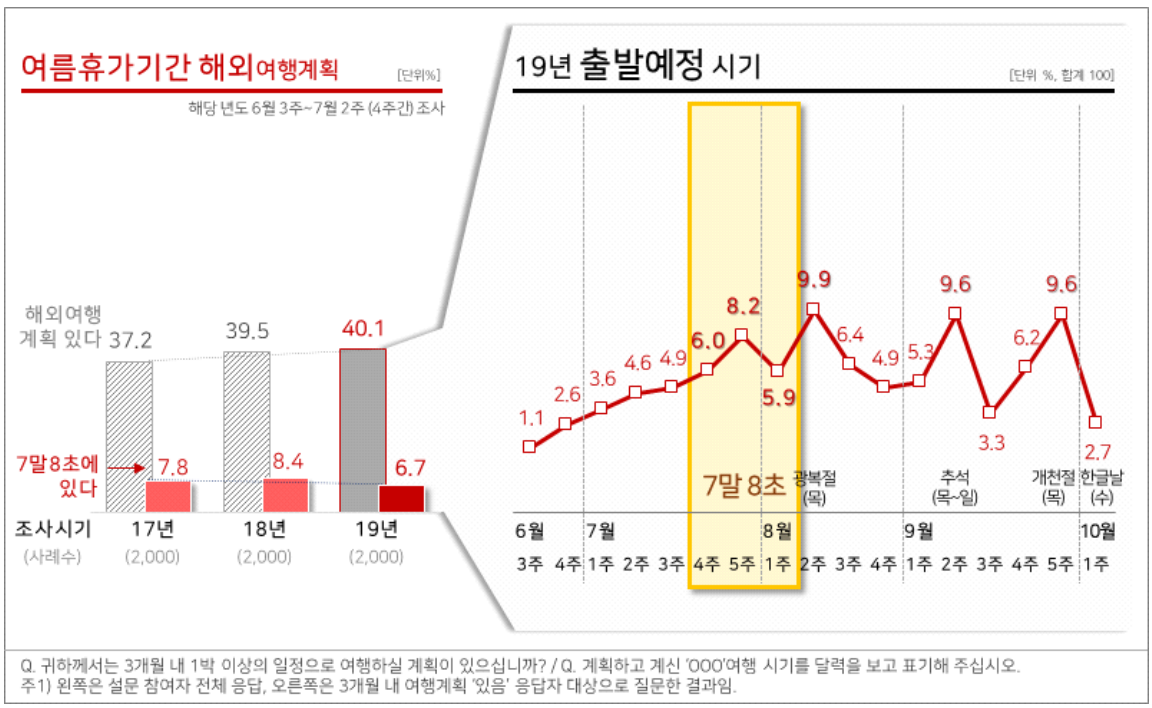


■ 해외여행-광복절 들어 있는 8월 2주가 가장 많아

해외여행 계획은 2017년 37.2%, 2018년 39.5%, 2019년 40.1%로 증가했으나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그림2]. 특히 7말8초 3주간 출발 계획은 지난 3년간 7.8%→8.4%→6.7%로 오히려 감소했다. 징검다리 연휴와 추석명절 등 공휴일을 연계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 출발 시기는 광복절이 포함된 8월 2주 9.9%로 가장 높고, 다음은 추석연휴가 포함된 9월2주, 개천절이 포함된 9월 5주가 각각 9.6%였다. 연휴가 있을 경우 7말8초 중 가장 많이 출발하는 7월 5주(8.2%)보다도 1%p 이상 높다. 추석과 개천절 여행 계획은 시기가 다가올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림2. 여름휴가 기간 해외여행 계획 및 출발예정 시기>



7말8초로 대표되는 전통적 여행시기가 분산되는 이유는 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욕구 때문이다. 징검다리 연휴 등을 활용해 연차는 적게 쓰면서 최대한 연휴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쓰는 국내여행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시간이 금이다'라는 모토 아래 움직이는 여행 소비자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이 결과는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연간 2만 6000명 조사)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 에서 볼 수 있으며, 2018-2019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리포트 다운로드 받기).

<별첨. 인구특성별 여행계획 보유율>

인구특성별 여행계획 보유율 (6월 3주~7월 2주 조사, 단위 %)

	국내여행				해외여행			
	응답기간 전체		7말8초 여행		응답기간 전체		7말8초 여행	
	19년	전년대비 (%p)	19년	전년대비 (%p)	19년	전년대비 (%p)	19년	전년대비 (%p)
전체	74.4	-1.4	27.7	-4.2	40.1	+0.6	6.7	-1.7
남성	76.0	-0.2	28.1	-4.2	41.6	+1.3	6.9	-1.8
여성	72.9	-2.4	27.2	-4.4	38.5	-0.1	6.4	-1.6
20대	71.2	+2.6	22.0	-3.7	42.6	-1.9	8.0	-1.6
30대	71.3	-5.9	22.8	-7.7	44.6	+4.9	8.6	+1.2
40대	79.1	+0.9	32.8	-9.7	39.5	-1.1	7.2	-2.1
50대 이상	72.1	-4.8	30.0	+1.0	39.3	+3.1	4.5	-3.3
미혼	68.4	-0.2	21.7	-3.3	43.6	-0.2	6.5	-2.4
기혼	78.1	-2.0	31.4	-4.7	38.7	+1.3	7.0	-1.1
신혼기(자녀 없음)	70.2	-1.8	18.0	-7.3	45.9	+0.8	9.3	+0.3
자녀 유아&초등	85.1	+0.2	36.7	-8.3	38.8	+2.0	8.7	+0.1
자녀 중고등	75.9	-6.9	38.5	-9.3	28.1	-6.7	5.2	-3.6
자녀 성인	74.5	-2.3	27.5	+1.5	38.9	3.1	5.2	-1.9

Q. 귀하께서는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Q. 계획하고 계신 'OOO'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기해 주십시오.
주1) 컨슈머인사이트의 '주례 여행행태 및 계획조사(매주 500명, 연간 2만6000명)'를 출처로 함.
주2) 통계적으로 전체 계획률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삼각형으로 표시함 (빨강>전체; 파랑<전체, 유의수준=0.05)

Copyright ⓒ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r-more-Information

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Ph.D	jungks@consumerinsight.kr	02)6004-7627
조혜원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원	johw@consumerinsight.kr	02)6004-7631